

낯선끼미어학

101. 2문제

그믐달(이용우) 편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복사, 재배포를 '절대'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3A)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골목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열린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두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도 말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걸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영겨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뿔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쭈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 “택에…… 펜찰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중략)

그들은 일곱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

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구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쥘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권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

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
 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㉔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1. ㉓와 ㉔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로 사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삼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④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길은 인생의 행로로서 그 길을 걷는 이들의 삶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는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연히 길 위에서 마주쳐 동행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동행은 일시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낯선 타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유대감과 온정을 느끼게 된다.

- ① ‘산골 마을’을 지나는 인물들이 추위와 허기 속에서도 여정을 계속하는 것에서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읽을 수 있군.
- ② ‘폐가’는 ‘불가’에 다가앉아 온기를 느끼는 일시적인 쉼터가 된다고 할 수 있군.
- ③ ‘읍내’는 백화와 영달, 정씨와 같이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장터’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군.
- ⑤ ‘역’은 백화가 ‘고향’으로 가면서 세 인물의 동행이 끝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3.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㉒: 영달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다.
- ③ ㉓: 정씨는 영달의 처지를 고려하여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 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 정씨와 영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3A)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 간은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랑가 보다.”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고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 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리기를,

“못난 여손(女孫) 심청은 아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추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심 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셨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이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안에 너를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 가면서 동냥 짓 얻어 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四窮之首)* 된단 말이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양화가 없겠느냐? 눈 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옛글을 모르느냐? 칠년 대한(七年大旱) 가물 적에 사람으로 빌라 하니 탕 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을 정히 하여 상임 뜰에 빌었더니 수천 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어가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해서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 소저의 효성과 심 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2백 석과 돈 3백 냥이며, 무명 삼베 각 한 동씩 마에 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2백 석과 돈 3백 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심 봉사에게 바칩시다. 2백 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채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삼베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에에도 알립니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자 할 때, 무릉촌 장 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앓는구나. 쌀 3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쌀 3백 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쭙었다.

[A]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백 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한 사람들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값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코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하릴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 「심청전」 -

* 사궁지수(四窮之首): 늙어서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뜻하는데, 여기서 문맥상 ‘자식 없는 늙은이’를 가리킨다.

4.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대화를 위주로 서술하여 사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5.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희생과 보상의 관계를 통해 서사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희생 자체가 갈등의 산물인 경우가 많으며, 이 희생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보상은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희생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 ① 심청의 희생은 심 봉사가 눈뜨기를 바라는 심청의 욕구와 공양미를 시주할 수 없는 가난한 현실 간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 ② 사당에 하직을 고하는 심청의 언행은 자신의 희생이 조상에 대한 불효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효를 위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심청과 이에 반대하는 심 봉사 간의 대립은 심청의 희생 결정이 불러일으킨 갈등으로 볼 수 있다.
- ④ 동네 사람들이 심 봉사를 위로하는 모습은 심청의 희생으로 유발된 심 봉사와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뱃사람들이 심 봉사를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6. [A]의 ‘승상 부인’과 ‘심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 부인	심청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심청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며 심청의 결심을 만류하고 있다.	②
심청	과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탄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승상 부인의 제안 수용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들어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④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속 이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3A)

회기 :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고
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
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택
과 마찬가지로.....

인옥 :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
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 ㉔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 택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
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 ㉕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택의 손처럼.....

인옥 :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
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
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
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중략)

금숙 : 아까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
요..... 가엾잖아요?

회기 :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숙 :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회기 :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금숙 :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회기 :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
들은 ‘의(醫)는 인술(仁術)’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
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
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
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때
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
고 있는 데 불과하니 말야.....

금숙 :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회기 :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
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
본 수술을 해 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功名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도 못했거든!
(하며 담배 연기를 푹푹 뿜는다.)

금숙 : (약간 당황하며) 전 자세한 얘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회기 : 그리고?

금숙 :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
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회기 : ㉖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미스 정은 정말 지레 짐
작도 잘 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금숙 : (무안해지며) 예?

회기 : 결혼과 의학과 무슨 상관있어. 내가 서른다섯이 되도
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애
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금숙 :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
째서.....

회기 : ㉗ (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듯)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
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금숙 :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회기 :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금숙 : (수줍음을 감추며)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회기 : (떨거니 금숙을 쳐다보며)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금숙 : ㉘ (당황하며) 예? 저야..... 뭐.....

회기 : 스물여덟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금숙 : (동요되는 마음을 저지하려고 무척 애쓰며)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회기 : 생각?

금숙 : (나지막하나 또렷하게)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 차범석, 「성난 기계」-

7.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말하세요.
- ② ㉡: '인옥'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것이 느껴지게 연기하세요.
- ③ ㉢: '금숙'의 말에 만족하여 침울했던 마음이 풀린 듯이 연기하세요.
- ④ ㉣: 대사의 내용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말하세요.
- ⑤ ㉣: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세요.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어 버린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여 그러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①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공장
은 이들을 둘러싼 비정한 현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②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기'에게 기계와 같다고 말하는 '인옥'
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니게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의사로서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 못했다는 '회기'의 말에서 비
정한 현실의 영향이 그의 의식에까지 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인옥'과 '금숙'을 대하는 '회기'의 태도는 그가 비정한 현실 속
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인옥'의 처지를 생각하는 '금숙'의 말이나 '회기'에 대한 '금숙'
의 태도에서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9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3B)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零落)하였다. 모시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채

[A] 하고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이거 얼마 만이야, 유(劉)군.”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B]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뵈울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C]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기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뻣뻣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물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퍼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드난: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줌.
* 쓰메에리: 목을 둘러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을 이동하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1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와 ‘옛 동무’의 물리적 거리는 [A]에서는 가까워지며 [C]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구보가 ‘옛 동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C]로 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옛 동무’에 대한 구보의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 ④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구보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보가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그 연장선인 그들의 행색이나 행동이다.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세계와 교섭하며 그 흔적을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구보의 시선이 포착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병든 육체와 정신이다. 이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구보의 진단이자,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 ① ‘구보’가 ‘대학노트’를 꺼내 든 것은 ‘바세도씨병’을 앓는 ‘노동자’와 그를 대하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시대의 일면을 포착한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② ‘군중’들이 ‘온정’을 잃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에 ‘구보’가 ‘딱하고 가엾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병든 정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볼 수 있군.
- ③ ‘노파’의 ‘굳어 버린 안면 근육’과 ‘딸의 그지없는 효양’으로도 감동시킬 수 없는 ‘눈’은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상실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의혹을 갖는 두 눈’에 지식인의 우울과 회의를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구보’ 역시 ‘만성 위확장’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은 구보의 ‘고독’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군.

(12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3B)

관찰사(觀察使)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관곡을 조사하다가 정선 고을에 와서 축난 것을 보고 크게 골을 내며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했던 말이냐.”

하고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그 양반이 워낙 가난해서 관곡을 갚을 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가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판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펴 곤란한 처지였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아내는,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구려. 허구한 날 양반, 양반 하더니 그 양반이라는 것이 한 뿐어치도 못 되는구려.” 했다.

마침 그 마을에 있는 부자 한 사람이 집안끼리 상의하기를 “양반은 비록 가난하지만 늘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비록 부자라 하지만 늘 천대만 받고 말 한번 타지도 못할 뿐더러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고 뜰 아래서 엎드려 절하고 코가 땅에 닿게 무릎으로 기어 다니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마침 양반이 가난해서 관곡을 갚을 도리가 없으므로 형편이 난처하게 되어 양반이란 신분마저 간직할 수 없게 된 모양이니 이것을 우리가 사서 가지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후 부자는 양반을 찾아가서 빌린 곡식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부자는 곡식을 대신 갚아 주었다.

군수는 그 양반을 위로할 겸 또한 관곡을 갚은 내력을 들을 겸 그를 찾아 갔다. 그런데 양반은 병거지를 쓰고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은 채 뜰 아래에 엎드려 ‘소인, 소인’ 하면서 감히 군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군수는 뛰어 내려가 붙들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한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수그리고 엎드려서,

“황송합니다. 실은 소인이 감히 스스로 욕되고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양반인 체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군수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그 부자야말로 군자며 양반이로군.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가 있고, 사람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겨 구하였으니 그것은 어진 것이요, 낮은 것을 미워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니 슬기로운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양반이외다. 비록 그렇지만 개인끼리 사고 팔고 했을 뿐 증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소송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이 고을 사람을 모아 놓고 증서를 만들어서 군수인 나도 거기다 도장을 찍으리다.”

(중략)

이렇게 증서에다 쓰고 성주(城主)인 정선 군수가 이름을 쓰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모두 서명을 했다. 이렇게 한 후 통인(通引)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큰 북을 치는 듯하고 모양은 북두칠성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을 호장(戶長)이 다 읽자 부자는 한참 동안 슬픈 표정으로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란 것이 겨우 이것뿐이란 말이요. 내가 알기로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하여 많은 곡식을 주고 산 것인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더 좀 이롭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증서를 고쳐 쓰기로 했다.

“하늘이 백성을 냄에 있어 그 백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자는 선비인데 이를 양반이라고 하여 모든 집에 이로운 것이 많다.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는 할 수 있다. 문과의 흥패라고 하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돈자루라고 할 수 있다. 진사는 나이 삼십에 첫 벼슬을 해도 이름이 나고 다른 훌륭한 벼슬을 또 할 수 있다. 귀는 일산 밑 바람으로 흩어지고 배는 종놈의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러진다. 방에는 노리개로 기생이나 두고 마당에는 학을 먹일 것이다. 궁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 살아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내 밭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잣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해도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자는 이러한 내용을 듣다가 질겁을 하고,

“아이구 맹랑합니다그려.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이요.”

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젖고는 한평생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전기성을 바탕으로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대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선 양반은 나라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고 갚지 못했다.
- ② 군수는 정선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여 그를 잡아 가두지 못했다.
- ③ 군수는 정선 양반이 양반 신분을 판 것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 ④ 군수는 부자가 양반을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해 의로운 행위라 칭송했다.
- ⑤ 군수는 부자의 요구에 따라 증서에 격식을 갖추어서 서명을 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정선 양반에 대해서는 ㉠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관점과 ㉡ 신분적 제약에 의해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고, 부자에 대해서는 ㉢ 신분 상승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적 존재라는 관점, ㉣ 본성이 선량하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 그리고 군수에 대해서는 ㉤ 양반 매매 증서 작성을 통해 부자의 욕망을 억압하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다.

- ① ㉠: 두 번째 증서에서 나타나는 무위도식하며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 양반 신분으로 인해 평생 글 읽기만 하다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 부자가 양반의 끈공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 부자가 두 번째 증서의 여러 특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 두 번째 증서에서 군수가 양반의 부도덕한 측면을 부각하여 부자 스스로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15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4A)

[앞부분 줄거리] 남도를 떠돌던 그가 과수원 수림을 우연히 찾아들게 된다. 그는 수림 주인으로부터 시장이의 사연을 듣는다.

눈치보기가 귀찮아서라더라고—.

할 말이 없어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마지못해, 그 시장이가 그토록 시골 집터를 소망하게 된 사연을 물었을 때 주인 사내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걸 무슨 관계의 조절이라고 말을 하던가.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조화롭게 잘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닌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듯한 말이었다. 아니 누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 자신의 도회생활의 체험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그토록 복잡해지고 게다가 사람이 무더기로 몰려 사는 도회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선 그게 더욱 실감나는 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그는 그 도회의 삶에서 엄청난 **[괴곤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도회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관계를 만드는 일에 너무 몰두해 버린 나머지 자신의 얼굴과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도회지 사람들의 삶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고 사람의 모습이나 그 자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도 전혀 바람직스럽거나 온당한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의 관계만을 원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탐욕스럽게 꺾어 이겨서 그를 맞이하고 다스리는 관계를 만들려 하였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얼굴과 자리를 팔려 하였다. 그것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였다.

주인 사내도 어쩌면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건 다시 그 시장이로부터 들은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도회지 사람들이 끔찍이도 소망스럽게 여기는, 도회로 도회로 몰려들면서 모든 구실을 거기다 밀어 붙이곤 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주인 사내가 그 도회지의 교육을 가리켜 눈치놀음이라고 말할 게 바로 그 소리 한가지였다.

도회지에서의 교육이란 사람의 옳은 모습이나 그가 원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이기고 지배할 것인가, 그 탐욕과 능력을 기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사람의 모습이나 자리가 없으니 오로지 관계만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지극히 부박하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끝내는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만을 애초에 사람의 자리에 없는 데서 그 관계만을 구하자니 힘들고 지쳐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관계를 구실로 때 없이 이웃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였다. 그것은 결국 **[눈치놀음]**을 익히게 하였고 끝내는 그 눈치놀음으로도 견뎌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다.

관계를 구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관계다운 관계를 바랄 수가 없는 형편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

는 이제 사람의 자리가 없는 그 관계로서만의 세상 자체에, 아니면 바로 그 관계 자체에 두려움과 피로감이 생기고 있었다.

어떻게 그 관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세상은 없을까.....

그가 여러 번 생각해 온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유랑 습벽]**에는 이를테면 그런 관계를 떠나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은밀한 소망이 깃들어 있었다.

눈치 보기가 싫어서라고 말한 그 시장이의 괴곤기 역시도 그런 비슷한 것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토록 벽지 시골에 자기만의 집터를 소망했음이 분명하였다.

그렇다면 ㉠ 시장이는 정말로 그 폐원 같은 사내의 수림에서 그의 괴곤기를 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시장이가 생전에 그 집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실상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거나 말았거나 그는 그 수림을 만남으로써 그 소유의 지배의 끈으로 엮어진 관계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풀어 놓을 수가 있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작자의 **[집터]**에 대한 소망이 수림 근처에 계속 머물러 버린 사실로 보아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과원의 수림에서 비로소 그가 잃어버리고 찾아 헤메던 사람의 모습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 사내는 이를테면 시장이가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랄 수 있었다. 사내의 삶은 이를테면 그 지겹고 피곤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외톨박이]**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 관계를 만들지 않은 대신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와 얼굴 모습이 뚜렷한 인간이었다. 아니, 그는 소유나 지배의 탐욕스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분명해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 뿐 아니라 그의 과원에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조차 소유하지를 않으려 하였다.

—한번 심거 준 나무를 빗땀시 다시 파웁니껴, 나무들도 거기서 그냥 자라나게 두었어요. 푸나무 한 그루도 다 제 생명을 지녀 사는 것이라 나무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지요. 생명 있는 것을 이리저리 파웁기는 버릇들이 많은지, 그런 건 모두 그 남의 생명을 너무 내 것이라고들 여기는 탓일 게요. 남의 생명을 내 것이라 우기면 내 생명도 누군가 그렇게 우기고 나설 일이 생길 거 아니겠소.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제 자리에서 사는 겹니다. 나무의 생명도 그만 권리는 있는 거외다.....

남의 땅에 심은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의 물음에 주인 사내가 모처럼 나무라는 어조로 일깨워 준 말이었다.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관계였다.

사내의 삶은 나무 한 그루의 생명조차도 끝끝내 소유를 거부해 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과 그 나무 사이에 무리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스스

로의 자리를 분명히 하였다. 스스로의 자리가 분명해짐으로써 사내는 오히려 그 나무들과의 의좋은 관계를 지어내고 있었다.

- 이청준, 「새와 나무」 -

* 시장이: 시(詩)를 쓰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암시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계층 간 갈등을 첨예하게 부각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사건을 병렬 배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각을 바탕으로 부재하는 대상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가 긴장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그'가 경이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③ '그'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그'가 지겨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낼 때, 주체와 타자는 피상적 관계에 놓인다. 이때 피상적 관계란 주체와 타자와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많이 형성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되고 사회는 획일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를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식하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존재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 ① **피곤기**는 '도회지'에서의 관계를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식하게 된 '그'의 절망감과 관련이 있겠군.
- ② **눈치놀이**은 형식적 관계를 배우고 가르치는 '도회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겠군.
- ③ **유랑 습벽**은 자기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도회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그'의 소망과 관련이 있군.
- ④ **집터**에는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도회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 사내'의 바람이 담겨 있군.
- ⑤ **외톨박이**는 '도회지'에서의 피상적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존재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주인 사내'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군.

[18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4A)

[앞부분의 줄거리] 김선옥이 가솔한 뒤 보상금에 욕심이 난 형욱은 가짜 선옥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부인 이씨만은 그가 남편이 아니라며 거부하다가 병자로 몰려 친정으로 쫓겨난다. 결국 조정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지면 서 임금은 어사를 파견하고, 진어사는 삼 년 만에 상원암에서 진짜 김선옥을 찾는다. 그리고 이씨의 정절을 선옥에게 확인시키고자 그를 종인(從人)으로 변장시킨 후 재판을 재개한다. 이때 김선옥의 부친인 김 처사와 이씨의 부친인 이 통관을 비롯한 양가 가족들과 하인 등도 관청에 모이게 한다.

“옛말씀에 하였으되, ‘만승지군(萬乘之君)은 빼앗기 쉬우나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뜻은 빼앗지 못 한다.’ 하였으니, 이제 왕명으로 죽이시면 진실로 달게 여기는 바이오나, 다만 [A] 부군을 만나지 못하고 죽사오면 미망인의 원혼은 구제할 것이 없을 것이요, 일후에 부군이 비록 돌아와도 진위를 분변할 자가 없사오니 지아버의 신세가 마침내 걸인을 면치 못할지라.”

라고 하고 죽기를 재촉하였다. 어사가 크게 노하여, “네 일개 요망한 여자가 심성이 교활하고 사악하여 아래로 김씨 문중의 친륜을 의심케 하고, 위로 천청(天聽)*을 놀라게 하여 조정과 영음이 분란케 되었으며, 벌써 거리에 머리를 달아 여러 백성을 징계할 것이로되, 성상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나를 보내셔서 자세히 살피라 하시어, 내 열음에서부터 너의 요사스럽고 교활한 심정을 이미 알았으나 성상의 너그럽고 어진 도를 본받아 형장(刑杖)*을 쓰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자식같이 알아듣도록 타일렀으니, 사람이 목석(木石)이 아니거늘 일할 고집하여 조정 명관(命官)을 무단히 면박하며 어지럽고 사나운 말로 송정(訟庭)*에 발악하기 하겠는가?”

하고 종인(從人)을 꾸짖어, “이씨를 형추(刑推)* 거행하라.” 하였다. 선옥이 소리를 크게하여 나졸을 불러, “병인(病人) 이씨를 형추하라.” 하니, 나졸들이 미처 거행치 못하여, 문득 이씨가 가마 속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어사는 왕인(王人)*이라, 이 곧 백성의 부모요, 상하 관속(官屬)은 모두 나의 집 하인이라.”

하고 가마의 주렴을 떨치고 바로 청상(廳上)에 올라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장부가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나뇨?” 하며 인하여 혼절하니, 통관이 딸 아이의 혼절함을 보고 대경 실색하여 약을 갈아 입에 넣고 사지를 만지며 부르짖었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 보니 부군이 또한 기절해 있었다. 부친으로 더불어 치료하니, 당상 당하에서 보는 자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고 처사의 부부와 [송정]에 있던 자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면면이 서로 보아 어떻게 할 바를 깨닫지 못하며, 가짜 선옥과 형욱은 낮이 훝빛이 되어 떨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씨의 절개도 가혹하거나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와 이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씨로 수양 딸을 정**하였다. 이씨가 부녀지례(父女之禮)로 뵈니 어사가 선옥과 이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 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부인이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퍼려니와 우선 네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이씨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實相)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주저하느냐?”
선옥이 그제야 이씨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월일야(某年月日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희롱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며,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 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이 나타나 나의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屈原)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고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댄 어찌 가정을 이룬 즐거움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하여 그 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대사의 상좌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B]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댄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청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년전 모월 모일 밤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만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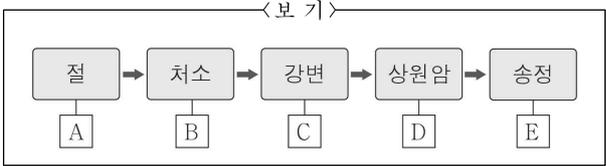
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낭자에게 여주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니까?’ 하니, 낭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이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 같은 이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 * 천청(天聽): 임금의 귀, 곧 임금을 가리킴.
- * 형장(刑杖):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
- * 송정(訟庭): 송사를 처리하는 곳.
- * 형추(刑推): 죄인을 지며 죄를 캐어 물음.
- * 왕인(王人): 왕명에 의해 내려온 관원.
- * 축출(逐出): 쫓아내거나 몰아냄.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18. <보기>는 인물의 이동 경로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옥’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 ② ‘선옥’이 B에서 C로 이동한 이유는 ‘이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③ ‘선옥’이 C에서 다시 A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씨’와 앞으로 함께할 삶이 부질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④ ‘선옥’이 C에서 D로 이동한 것은 ‘수운대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 ⑤ ‘선옥’이 D에서 E로 이동한 사실을 ‘처사 부부’는 짐작하지 못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남녀 주인공이 헤어져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재회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또한 남자 주인공의 실종으로 인해 진가(眞假) 여부를 밝히는 재판까지 벌어지는 등 송사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절개를 지키려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정절담(貞節談)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 ① ‘어사’가 ‘이씨로 수양딸을 정’하는 것에는, 여자 주인공의 지조와 절개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군.
- ② ‘앞니’의 ‘푸른 점’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진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군.
- ③ ‘대인을 만나’게 된 사건은,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바탕이 되는군.
- ④ ‘갓’을 ‘장난으로 내려 쓰’는 것은, 여자 주인공의 정절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남녀 주인공이 분리되는 원인이 되는군.
- ⑤ ‘축출하던 일’은, 남자 주인공의 실종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자, 여자 주인공이 궁지에 몰렸던 상황과 관련되는군.

20.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B]에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A]에는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B]에는 타인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A]에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는, [B]에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A], [B] 모두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A], [B] 모두 자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4B)

[앞부분의 줄거리] 좌승상을 지낸 정진희의 아들 을선과 우승상을 지낸 유한경의 딸 추연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추연의 생모는 추연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고, 유한경은 후실로 노씨를 들이게 되는데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한편 을선은 장원급제하여 이부시랑이 되고 초왕으로 봉해진 아버지와 함께, 추연과 혼인하고자 유소저의 집으로 간다.

각설. 이때 노씨 매양 소저를 죽이고자 하더니, 일일은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 소저를 주되 소저 마침 속이 불편한지라 이에 받아 유모에게 들게 하고 침소에 돌아와 먹으려 할새, 하늘의 살피심이 있어, 홀연 난데없는 바람이 일어나 티끌이 죽에 날려들거늘 소저 티끌을 건져 문밖에 버리니 푸른 불이 일어나더라. 이에 크게 놀라 유모를 불러 연유를 말하니 유모도 함께 놀라 이에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노씨 마음에 해오되, '약을 먹여도 죽지 아니하니 가장 이상하도다.'하고 다시 해할 계교를 생각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길일이 다다르매 정시랑이 위의를 갖추어 여러 날을 행하여 유승상 집에 이르니 시랑의 풍채 전일보다 더 흰출하여 운무같은 관대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 각대를 띠었으니 천상 신선이 하강한 듯하더라.

(중략)

이튿날 예를 갖추어 전안(奠雁)*할 때 근처 수령이며 시비와 하인 무리지어 신부를 인도하여 이르매 신랑이 교배석(交拜席)에 나아가 눈을 들어 신부를 잠깐 보니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채의(彩衣)를 입고 무수한 시녀 우위하였으니 그 절묘한 거동이 전에 추천하던 모양보다 뛰어나더라.

그러하나 신부 수심이 가득하고 유모 눈물 흔적이 있거늘 심중에 이상하나 누구를 향하여 물으리오. 이에 맞절하고 침소로 나아가니 좌우에 향촉과 운무병풍이 황홀한지라. 홀로 소저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유모 축을 밝히고 들어오거늘 시랑이 팔을 들어 맞아 신부에게 자리를 청한 후에 축을 물리고 원앙이불을 펼치니 문득 창밖에 수상한 인적이 있거늘 마음에 놀라 급히 일어나 앉으니 어떤 놈이 말하되,

“네 비록 지금 벼슬을 하였으나 남의 계집을 품고 누웠으니 죽기를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하거늘 창틈으로 엿보니 신장이 아홉 척이요, 삼척장검(三尺長劍)을 비껴 차고 섰거늘 이를 보니 전신이 떨리어 칼을 빼어 그놈을 죽이고자 하여 문을 열고 보았더라. 문득 간데없거늘 분을 참지 못하여 탄식하고 생각함에 ‘오늘 교배석에서 보니 수심이 가득하여 이상히 여겼더니 원래 이런 일이 있도다.’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들고 소저를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다가 또 생각하되, ‘내 옥 같은 마음으로 어찌 저 더

러운 계집을 침노하리요.’하고 옷을 입고 급히 일어나니 소저 경황 중 가로되,

“군자는 잠깐 앉아 침의 말을 들으소서.”

하거늘 시랑이 들은 체 아니하고 나와 부친께 그 말을 고하고 바빠 가기를 청한대 초왕이 크게 놀라 바빠 승상을 청하여 지금 출발하여 상경함을 이르고 하인을 불러 행장을 차리라 하니 유승상이 계단에 내려 물어 가로되,

“어찌된 연고로 이 밤에 상경코자 하십니까?”

정공 부자 아무 대답없이 출발하니라.

[A] 원래 이 간부(姦夫)로 칭하는 자는 노녀의 사촌 오라비 노태니 노씨 지난 날 독약을 시험하되 소저 무사함을 시기하여 밤낮으로 죽이기를 꾀하더니, 문득 길일이 다다르매 일계를 생각하고 이에 심복으로 노태를 불러 가만히 차사(此事)를 이르고 금은을 많이 주어 실행하라 함에 노태 금은을 욕심내어 삼척장검을 잡고 달 밝은 밤에 소저 침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소저를 갱참(坑塹)*에 넣으니 가련하다.

유소저 백옥 같은 몸을 누명을 얻으니 원정을 누구에게 말하리요.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이렇듯 죽으면 내 일신이 옥 같음을 누가 알리요’하고 이에 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 유승상이 초왕을 보내고 급히 안으로 들어와 실상을 알고자 하나 노씨는 모르는 체하고 먼저 물어 가로되,

“신랑이 무슨 연고로 심야에 급히 가나이까?”

승상이 말하되,

“내 곡절을 모르매 제 노기 충천하여 일언을 부담하더니 어찌 연유를 알리요. 자세히 알고자 하노라.”

노씨 승상 귀에 대고 가로되,

“침이 잠결에 듣사오니 신랑이 방문 밖에서 어떤 남자와 소리를 지르며 여차여차하니 아무거나 추연에게 물으소서.”

승상이 즉시 소저 침소에 가니 소저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 아니하거늘 시비를 시켜 이불을 벗기고, 꾸짖어 가로되,

[B] “네 아버 들어오되 기동함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이며, 정랑이 무슨 일로 밤중에 돌연히 돌아가니 이 무슨 인지 너는 자세히 알지니 이실직고하라.”

소저 겨우 고하여 가로되,

“아버지, 불초한 자식을 두었다가 집을 망하게 하오니 소녀의 불효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B] 하고 함구무언(緘口無言)하니 승상이 다시 말하되, “너는 어찌 일언을 아니하느냐.”

재삼 묻되 끝까지 일언을 답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비처럼 쏟으니 승상이 생각하되,

‘전일의 지극한 성효(誠孝)에도 오늘날 불효를 끼치니 무슨 곡절이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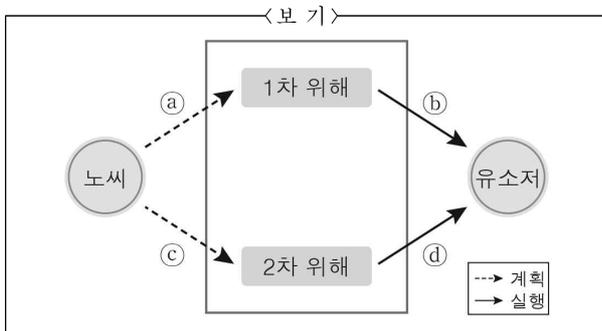
하고 일어나 외당으로 나오더라.

*전안: 혼인 때에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개참: 깊고 길게 파 놓은 구덩이.

21.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왕'은 정시랑의 성급한 행동을 꾸짖었다.
- ② '노씨'는 유승상을 부추겨 유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 ③ '유소저'는 유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 ④ '유승상'은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⑤ '정시랑'은 유소저의 안색을 보고 노씨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22. 뒷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노씨는 자신을 b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 ② b에서 유소는 유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 ③ d에서 노씨는 노씨의 사주를 받은 대로 c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④ b의 결과는 노씨가 c를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 ⑤ b, d에서는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유소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2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4B)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서출(庶出)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는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데에도 무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텅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찢개고 작은 **파편 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로 하여금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였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드러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께 씩어뻘듯 말했다.

“백괴 몸뚱이만 생으로 난도질해 놔다 아입니까. 두 번 다시 할 짓 못됩니다. 고무다리에 외팔 인생도 썩비린 판국에 그까짓 쇠조각 하나 들었으나 어땡고 안 들었으나 어땡겠 임니까. 어차피 죽으나 썩어질 몸뚱이…… 내사 마, 이대로 좋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갑니다만 나는 싫다 아입니까. 거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까? 불구 인생이기는 피장파장인기라요…….”

삼촌은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곳은 날이면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주 끄꿍 앓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 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깊어지지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 있는 쇠독(毒)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짓곤 했던가…….

(중략)

“자네 아버지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즐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얽게 깔리기 시작한 창 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녀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러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녹녹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채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골절 끄꿍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 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었다. 구닥다리 **엠원 소총**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임디.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물겠는데 자기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능최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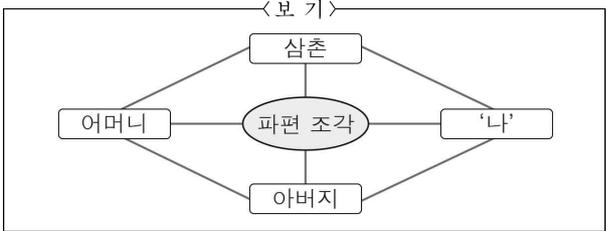
당긴 기억도 또 충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둬진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오선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들였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 이동하, 「파편」 -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 사건을 여러 인물들의 시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25. <보기>는 **파편 조각**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는 삼촌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가 파편 조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 ② 어머니는 파편 조각을 통해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린다.
- ③ 삼촌은 어머니에게 파편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재차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힌다.
- ④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나'는 파편 조각과 삼촌의 말을 연결하여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삼촌이 알고 있으리라 추정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짧은 서평 쓰기 활동을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겪은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 소설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쟁이 초래한 비인간화, 인간성 황폐화, 개인에게 남긴 상처, 사회 부적응과 인간 소외, 가치관 혼란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서평 쓰기

- ㉠ 삼촌이 자신을 '빈 껍데기'로 표현한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삼촌의 '말수가 줄어든' 것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채 점차 위축되어가는 상처 입은 삶의 모습으로 진단할 수 있다. ⓑ
- ㉢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 삼촌이 '엮원 소송'을 소지한 것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정체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삼촌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살의의 충동'은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평범한 인간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7A)

【앞부분의 줄거리】 오 영감이 키우던 오리 '간둥이'는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 진씨에게 팔린다. 그런데 그 후 간둥이가 뒷집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간둥이에 대해 장석조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간둥이가 자란 이 뜰이 누구네 집 안쪽인 게야? 집주인 땅이지 않아? 그러니깐 가설라르네 집주인인 장씨에게도 얼마간 귀여 귀여 뒤달이 없대구.”

“여름 내내 오리똥 냄새 때문에 코 싸매쥐고 살아온 우리는 우뻛고? 우리 모가치도 쓸쓸찮게 내놔야 할걸.”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던 광수 애비가 별떡 일어나 뒤죽을 꺾어 신은 구둣발로 땅바닥을 걷어차 흙부스러기를 오리한테 끼었으며 주절거렸다.

“젠장 이 오리똥이 바로 내 방 앞에 놓여 있어가지구 ㉠ 우리가 언제나 고생을 했대구요? 말은 내놓고 안 했지만서두. 이참에 그냥 넘어가면 내게도 다 생각이 있대구요.”

그러자 끝방 최씨가 혀를 차며 끝탕을 하였다.

“㉡ 에그 버릇이 간을 내먹겠다고 혀는 편들이 나올 성실네…… 쫓쫓.”

<중략>

뭐라고나 할까. 미운 오리새끼에서 위풍당당한 거위, 그것도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쫂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현실적으로 비쳤다. 입을 반쯤 헤벌리고 허공을 보는 사람, 팔을 높이 쳐들고 거드랑이를 긁는 사람, 하품을 하느라 입을 손으로 가린 이, 그리고 장화를 거꾸로 들고 터는 사내.

그러나 그 광경의 평화스러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누가 진동환이오?”

대뜸 거친 반말을 해대는 제복한테 압도당한 사람들은 이제 막 깨어난 사람들처럼 굼뜨게 움직였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저요만…… 지 이름 석 자가 진동환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빨리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서로 좀 갑시다. 조사할 일이 있으니깐.”

“야경비*라든 야그 다 끝났을 텐데…….”

“내가 한가롭게 야경비나 받으러 온 것 같소?”

“그럼…… 녀들 다 노는 공휴일날 뭘 바쁜 일이?”

“하따 말 많은 것 보니 진짜 공산당 걸네. 가보면 아니깐 얼른 따라오기나 하쇼.”

진씨는 점심 나절이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반장 노릇을 하는 갑석 아버지를 파출소로 보내 동태를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진씨가 아메도 장물애비로 몰린 모양이더라고. 곧 풀려난다고는 하는데 모르지 뭐. 어디까지나 그때 가봐야 혀는 게 갱찰일이니.”

“와요?”

“건 내도 잘 모르는 일인데, 듣자 하니 저 뒷집에서 찌른 모양이야. 뭐? 오리가 뭘 삼켰다며? 그게 자기 집에서 나온 건데 진씨가 돌려줄 생각은 않고 버틴다꼬 했던 모양이던데 이 옷간에 좋은 말로 끝을 붙이지 그제 뭐꼬?”

“아니, 즈그덜이 증말 오리 뺏속에 거서기가 든 걸 확인이나 해보고 하는 소릴란가?”

“그게 아니겠지. 여기서 하두 떠들어싸니까 지레짐작으로 후리고 나오는 거겠지 뭐. 내 참 드러워서. 한 동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진씨는 간단한 경위서만 받아 쓰고 나와 혼잣소리를 하며 건들건들 올라왔다.

“우짜 일이고?”

“우짜 일은요? ㉢ 저 집구석들에서 지들 장롱에 고이 처박아 두고서두 수챗구멍*이니 어찌나 허면서 간릉*을 떨어싼 거진.”

“사람을 우짜 보고 쫓쫓. 썬글라스 끼고 거들먹거리고 살만단가? 근데 자네 놀라지는 말거라이. 자네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진동한듯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한눈을 판 사이에 간둥이가 갑자기 달겨든 개한테 물려서 피투성이가 돼고 난리를 직였는데 다행히 다리만 조금 다쳐 목숨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마. 놀랐으니깐 진정만 시키면 될 거라.”

“우편 집 갠테요?”

“그거이 저어, 노란 대문집 개였는데 말이여. 우연히 일이 그렇게 돼 부린 모양이더구만.”

진씨는 부엌에서 간둥이를 꺼내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똥가 분하기도 하고 싫기도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간둥이를 라면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가 해거름이 다 돼서야 타박타박 돌아왔다.

“우데 갔었노?” / 기다리고 있던 쌍용 아버지가 물었다.

“서장…….” / “서장이라니?”

“아 서장 모르요? 백삼십팔 번 요 앞에서 타든 종점까지 가잖아요.”

“건 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한강에서 맘대로 노닐며 살다 죽으라고요. 와, 안됐습니까?”

“㉣ 기껏 돈 쥐서 사들여선 몸보신도 앓고 그 짓을?”

“㉤ 아무리 짐승이지만 벌써 몇 벌 죽임을 시키는 게요. 도무지…… 사람들끼리 맘 상하게 허구 말이유. 그리고 나니 내 마음속이 어찌나 후련한지 십 년 폐병이 다 낫는 것 같더라구요.”

진씨는 말을 마치고는 뒤돌아서서 받은기침을 연달아 쏟아냈다. 아마도 찬 강바람을 너무 많이 쐈 탓이었던 모양이다.

-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야경비: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 따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비용.

* 수컷구멍: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의 구멍.
* 간동: 계간 있게 능청스러움.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특정 소재를 둘러싼 문제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씨는 간동이 특이한 오리라는 것을 알고 돈을 주고 사들였다.
- ② 간동이 뱃속에 금반지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진씨가 곤경에 빠진다.
- ③ 진씨가 파출소에 간 사이에 사람들은 간동이를 잡아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
- ④ 진씨는 간동이 다친 것에 화를 내며 간동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⑤ 사람들은 진씨로부터 간동이를 빼앗기 위해 간동이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석조네 사람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장석조네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선한 심성을 갖고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일상적 다툼은 극한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작가의 인도주의적 시선으로 마무리된다.

- ① 한강에 간동이를 놓아준 진씨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어.
- ② 진씨를 장물애비로 신고한 윗집 사람들을 통해 각박해진 세태를 짐작할 수 있었어.
- ③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경찰을 통해 개인 간의 일상적 시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어.
- ④ 장석조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가난한 주변인들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
- ⑤ 진씨의 안위를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주는 정을 느낄 수 있었어.

3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동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광수 애비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 간동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치다고 보는 최씨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③ ㉢: 윗집 사람들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④ ㉣: 간동이의 이용 가치를 잘 모르는 진씨를 조롱하고 있는 쌍용 아범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⑤ ㉤: 사람들의 말 속에서 몇 번이나 죽임을 당했던 간동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7A)

【앞부분의 줄거리】 까치가 새로 보금자리를 짓고 온갖 날짐승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 적에 심술이 사납고 욕심 많은 비둘기만 초청하지 않았다. 이에 비둘기는 까치에게 불만을 품고 까치의 집을 빼앗으려고 잔치에 와서 횡포를 부린다.

비둘기가 할미새를 꾸짖어 이르되,

“너는 들어라. 나이 칠십이 넘은 것이 소년들과 함께 무엇을 구경하며, 무엇을 먹자고 와서 깔깔대며 끼여있는고. 아무리 방정맞고 생각 없는 것인들 그런 행실이 어이 있을꼬.”

하되, 할미새 무릎히 물러가니라. 또 섬동지 두꺼비를 꾸짖어 가로되,

“네 모양을 보니 키는 세 치가 못 되고 능히 일보를 뛰지 못하고 한丈 눈만 꺼벅거리며, 파리나 잡아먹을 것이어늘 이 잔치에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참견하는고.”

하며, 인하여 좌중을 무수히 헐뜯고 욕하니 까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비둘기를 후려치며 꾸짖어 가로되,

“불청객이 자리하여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분별이 무슨 일인고. 내 음식에 내 술 먹고 이렇듯 헐뜯고 욕하니, 너 같은 심술이 어디 있으며 염치가 바이 없다. 나는 고사하고 동네 늙은이와 남의 늙은 부인네들 모르고 헐뜯으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이 어디 있으랴. 고서(古書)를 듣지 못하였느냐. 내 집의 노인들 공경하여 그 마음이 다른 집 노인에게 미치게 하라는 성인의 말씀이 있거늘, 전혀 사리를 알지 못하니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을꼬.”

하니 비둘기 이 말 듣고 대로하여 달려들며, 두 발길로 까치를 냅다 차니, 만장고목 높은 가지에서 떨어져 죽사하는지라. 이때에 암까지 대성통곡하며 달려들어 비둘기를 쥐어뜯으니, 여러 비금*들이 달려들어 비둘기를 결박하고 인하여 관아에 고발하니라.

<중략>

군수 증인들을 불러들여 물을 제 할미새 생각하되,

‘지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면 흉악한 비둘기에게 이 늙은 것이 구박을 받을 것이요 감추거나 숨기면 중형을 당할 것이니, 노망한 채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다.’

하고, 쉼 머리에 먹칠하고 연지 발라 꾸미고, 행주치마 엉덩이에 매고 뜰 아래로 들어갈 제 뽀족한 주둥이를 호물떡호물떡하며, 휘둘러 갈짓자로 걸음하여 무수히 절을 하며 가로되,

“듣자온즉 사또님이 수청을 소녀로 들라 하신다 하오니 이렇듯 엄하게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어느 영이라 거역하리이까. 소녀의 방년이 지금 늙지도 아니하고 젊지도 아니할뿐더러 나이 십오 세부터 칠십이 넘도록 벼슬아치마다 수청들었사오니 어찌 즐겨 거행치 아니하오리이까.”

하며, 잠시도 엉덩이를 진정치 못하거늘 군수 그 거동을 보고 반만 웃으니 할미새 모자란 채하고 다시 여쭙오되,

“세상사를 생각하면 가히 우스운 것이 늙으면 죽을 수밖에

는 없더이다. 올라가신 구관 사또는 색 고운 젊은 것만 취하옵고 돌아보지 아니하오매 겨울밤 찬 바람에 독수공방하울 적과 봄바람 도화 피는 밤이며 가을 밤에 오동잎 지는 적에 늙고 늙은 수심 절로 나매 참으로 진정 서럽더니 천우신조(天佑神助)하와 사또님이 수청들라 하옵시니 반갑기도 측량 없고 즐겁기도 그지없사외다.”

하거늘 군수 크게 웃어 가로되,

“노망 들린 할멈이라.”

하고, 등 밑에 내치매 할미새 거동 보소. 살기를 모면하고 엉덩춤을 들까불며, 뛰어 달아나니 그 거동 보는 자 다투어 웃으리요. 이때에 군수 여러 증인들을 모두 불러 문초하였으나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고민하더니 형리 따오기 여쭙오되,

“과연 본방 풍헌을 불러 물으시면, 알 듯하여이다.”

군수 옳게 여겨 즉시 술개미 풍헌을 잡아들여 물으니 술개미 아뢰되,

“소생은 풍헌의 직책을 맡은 지 불과 몇 개월에 매일 나라에 바칠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에 밤낮으로 분주하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혹 병아리 마리나 얻으면 소생이 먹지도 않고 관청에 바치오며, 삼사월 긴긴 봄날에 굶고 지내는 날도 종종 있나이다. 그러므로 까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신은 가지 못하였사오니 그간 사정은 알지 못하옵거니와 미련한 소견에는 초산에 모진 범이 아무리 날래어도 독 틈에 쥐잡기는 작은 고양이만 못하옵고 풍헌이 아무리 똑똑히 살핀다 해도 동네 일 알기는 동수(洞首)만 못하오니 동수를 잡아들여 물으시면 그 진위를 알 듯하외다.”

아뢰거늘 군수 옳게 여겨,

“즉시 동수를 잡아들이라.”

하니라.

차시에 두민* 섬동지의 이름은 두꺼비요, 자는 불록이라. 일찍 중국 병서와 병법에 능통하는지라. 동지의 의사가 창해 같아 그른 일도 옳게 하고 옳은 일도 그르게 하더니 마침 비둘기의 처자 동생이 심야에 찾아가 금백주옥(金帛珠玉)과 온갖 비단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동지님의 바다 같은 도량으로 이 일을 주선하와 아무쪼록 장난을 하다 잘못하여 죽인 것으로 하여주옵소서.”

동지 답하여 가로되,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하였으니 염려 말라. 내 들으니 책방구진과 수청기생 앵무새가 군수 영감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다 하니 금은보패를 드려 이리저리 방법을 써 가며 여차여차하자.”

하고 약속을 정하고,

“각청 두목과 제반 관속에게 뇌물 쓰고 이리이리 하면 암까지 한 마리가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자연스럽게 장난을 하다 잘못하여 죽인 것이 되리라.”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그 말같이 하니라.

- 작자 미상, 「까치전」

* 비금: 날짐승.
* 두민: 동네의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둘기의 처자 동생은 두꺼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② 솔개미는 자신의 잘못을 두꺼비에게 떠넘기고 있다.
- ③ 군수는 형리 따오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암까치는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과부가 되었다.
- ⑤ 비둘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32. [A]와 [B]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비유를 활용하여 상대를 치켜세우고 있다.
- ② [A]와 [B]는 윤리적 도리를 내세워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앞으로 닥칠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의 의도를 숨기며 말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까치전」은 까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송사소설이다. 특히 1차 송사는 뇌물과 청탁이 오가고 무능한 관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공정한 판결로 끝난다. 이를 통해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탐관오리와 손잡고 선량하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다.

- ① 암까치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게 피해를 입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군수는 무능한 관리라 할 수 있겠군.
- ③ 할미새와 같이 증언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물로 인해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졌겠군.
- ④ 비둘기를 결박하는 비금들의 등장은 탐관오리를 응징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없애려는 서민들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두꺼비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로, 뇌물을 받고 청탁에 관여하는 부정한 세력으로 볼 수 있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7B)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전 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 후 여학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장원급제하여 계양(이 부인)과 혼인한다. 달마왕이 재차 명나라를 침입하자 국진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으나 병이 들어 위기에 처한다. 이때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전장으로 달려가 국진을 돕고 그의 병을 치료한다.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국진의 회복으로 명나라 진영에 새로운 변화가 왔음을 능히 알 수 있더라. 두 도사는 병세로 인해 진문을 굳게 닫고 있던 국진이 회복하여 싸우러 나오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훤히 알고 있음이더라.

도사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 부인의 정체를 알아보는 못하는 듯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포위를 헤치고 나가는 용감한 태도로 보아 천하의 명장이요, 혹시나 여학도사가 보낸 장군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 더구나 이 알 수 없는 장군이 명나라 진에 들어가 국진의 병을 고쳐 주었으니, 그 재주의 비범함을 틀림없다고 짐작하더라. 이에 도사들은 진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더라.

이렇게 하여, 달마왕과 천원왕은 포위진을 뜯어 자기의 군사를 원래의 진영으로 다시 정리하더라. 이런 다음 천원왕은 예의 용천금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호통을 치면서 달려 나가더라. 이에 국진과 이 부인은 서로 나가겠다고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으나, 국진은 이 새로운 사촌 처남의 열의에 어쩔 도리 없이 양보하더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마주 싸우니, 보이지 않는 선녀들이 비호한 이 부인의 대담무쌍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격찬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라. 그것을 보고 누가 이 부인을 감히 여자라고 말할 것인가. 따라서 국진이 이 부인을 자기의 처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같은 천하 명장을 고양이 귀를 잡듯하니, 이를 보는 국진으로서는 그 통쾌한 숨씨에 자신도 모르게 탄복할 따름이더라.

이러한 놀라움과 찬탄은 적진에서도 마찬가지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흥분해서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고, 그중에서도 오금도사는 천원왕의 위협을 간과하고는 재빨리 징을 쳐 그를 돌아오게끔 하더라.

땀을 흘리며 지쳐 돌아온 천원왕은 자기의 피로도 잊은 채 적장을 칭찬하기에 정신이 없더라.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부인은 국진보다 몇 배나 더한 신출귀몰(神出鬼沒)한 명장이더라.

날은 캄캄하여,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천원왕은 어제의 분패를 씻으려 나서자, 달마왕이 그를 밀어내고 앞질러 적진으로 나아가더라. 이에 이 부인이 그들 앞으로 나서니, 달마왕이 이 부인을 막아 격전을 벌이더라.

서로의 싸움은 한동안 승패 없이 이어진 듯도 하니 좋은 적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더라.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국진과의 싸움에서처럼 달마왕은 말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이 부인의 비

린도에 맞아 머리통이 부서질 뻔하더라. 이것을 본 천원왕이 시둘러 구출하여 제 진으로 돌아가더라.

그런 후, 격분한 천원왕은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더라. 얼마간 싸웠을 때, 천원왕의 용천금이 허공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는 듯하더니, 그는 온힘을 다하여 용천금을 내리치더라. 이 때문에 이 부인의 비린도가 반 가량 부서지더라.

이 유일한 무기를 잃었으니 이 부인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는 이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하더라. 이 부인은 남은 비린도를 어루만지며 입 속으로 주문(呪文)을 외우자 비린도가 칠척 장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천원왕은 싸울 기력을 잃고 말았으니, 적장의 비범한 재주에 놀라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을 정도더라.

장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오금도사와 백운도사가 각각 최후의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손에 내어 들더라. 백운도사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먼저 적장을 향해 화전을 쏘더니, 화전이 대변에 불로 화하며 이 부인을 감싸더라. 이를 보는 백운도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하더라.

다음 순간, 놀랄 만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더라. 이 부인은 불에 싸이자 선녀를 명하여 폭포수를 내려 이 불을 끄라고 하달(下達)하니, 두 선녀는 허공에 솟아올라 폭포수를 쏟아 내더라. 이에 불도, 화전도 쓰일 바 없으며 폭포수에 간 곳조차 없더라. 이를 본 오금도사가 이 때라고 생각하고 물병을 기울더라. 그 결과 순식간에 홍수가 되어 명나라 진영으로 그 물은 흘러가니, 황하의 홍수도 이토록 거창하다면 우임금의 구년치수(九年治水)*를 애초부터 단념시켰을지 모를 일이라.

이 부인은 다시 선녀를 불러 이 물을 적진으로 돌리라고 명하니 두 선녀는 순식간에 그것을 바다로 만들어 적진으로 향하게 하니, 달마국의 백만 군사와 천원국의 이백만 군사는 삼시간에 형체조차 찾을 길 없이 바닷물에 쓸려 가더라.

이에 국진은 천원왕을 뒤쫓고, 이 부인은 달마왕을 뒤쫓아 달려가더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를 비롯하여 술한 도사들은 제각기 술법을 다해 이들을 막으며, 두 왕을 멀리 화룡산으로 보호해 피하더라. 이로써 그들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장국진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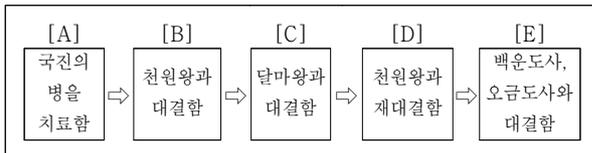
* 구년치수(九年治水) :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림.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꿈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④ 사건의 빠른 전개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35. 다음은 '이 부인'을 중심으로 윗글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달마왕'과 '천원왕'이 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 ② [B]와 [C]를 통해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 드러난다.
- ③ [B], [C]와 달리 [D]에서는 '이 부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나타난다.
- ④ [B]~[D]의 결과로 [E]에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가 최후의 방책을 사용한다.
- ⑤ [B], [E]에서 '이 부인'이 승리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 여성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소설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 ①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을 통해 '국진'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이 부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당시의 여성에게 자아실현 기회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국진'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④ '이 부인'이 비범한 능력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겠군.
- ⑤ '국진'이 적장과의 싸움에 '이 부인'이 나서서 것을 만류하는 행동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제약을 짐작할 수 있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7B)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출씩거리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두어 개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 놓고 출씩거리려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뽕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 돈 두 푼종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 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뜨리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의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답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 보통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십육 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폴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보았다.

㉡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항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고.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겐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아니, 도적질을 하는 것이 나쁘고 악하고 하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럽다. 치사스럽다.

이 해석이 마침 자기의 비위에 맞았다. 그래 그는 싱그레니 혼자 웃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뺏기지 않는 놈은 도적질할 권리도 없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중략>

“웬일야?”

범수는 대뜸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 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옆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뜨려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서서서 것이다.

범수는 마루로 피해 나오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구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람 반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올려보며 “무슨 낮으루 자식을 나무래요? 다 에미 애비 죄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노니 안 그럴까?”

“아니 글썽, 왜 그러는 거야. 굶는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 뿐이게 새삼스럽게 이러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두 괜찮단 말이요?”

“도적질?”

“그렇다우.....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켰다우. 자, 시언허우.”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올랐다.

㉢ 그는 무어라고 아이를 나무라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 “홍! 이놈의 자식 승어부(勝於父)*는 했구나.”

하고 두런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거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 “두구 보자. 네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썬비스 공장으로 최씨를 찾아갔다.

— 채만식, 『명일(明日)』 —

* 승어부(勝於父):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은.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10A)

[앞부분의 줄거리]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나기배 씨는 치열한 경쟁 끝에 기업의 이사로 승진한다. 어느 봄날, 나기배 씨는 마당의 정원을 가꾸다 누군가 숨겨 놓은 녹슨 깡통을 발견한다.

깡통을 기울이자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쏟아진 것은 수백 개의 유리구슬이었던 것이다.

실사 핵탄두를 파냈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구슬을 한 주먹 집어 들고 무슨 진기한 보석이랄도 감정하듯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유리구슬이었고, 그것도 속에 바람개비 모형의 색띠가 들어 있는 놀이용 색 구슬들이었다.

“아, 이거야말로 보물단지를 캐낸 거로군…….”

[A] 나기배 씨는 비로소 미소를 머금었다. 보배…… 그는 기억해 냈다. 우리는 이것을 보배라고 했지. 보통 구슬 열 개 맞잡이로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다. 그는 다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의 울림이 깊이 남았다.

아이들 방을 향해 그는 소리쳤다.

“애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니?”

텔레비전 탓이다. 아이들이 알아듣기까지는 네댓 차례나 목청을 돋우어야만 하였다. 텔레비전의 불륨이 낮아지더니 큰 녀석이 얼얼한 내뿔었다.

“나 불렀어, 아빠?”

“이리 좀 나와 보렴.”

“왜요?”

“와서 보면 안다…….”

“뭔데 그래요? 우리 텔레비 보구 있는데…….”

녀석은 선뜻 나오려 들지 않는다. 만화나 타잔영화라도 방영 중인 모양이다. 그놈의 텔레비전……, 나기배 씨는 속으로 투덜댔다. 백 프로 황당무계한 스토리에다가 엉뚱한 연애심리 같은 걸 비벼 넣어 아이들의 순결한 넋을 흘리는…….

……(중략)……

끝끝 허를 차며 나기배 씨는 또 생각하였다. 우리들의 손은 어떠했던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매사에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였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깐 그래…….”

나기배 씨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는 되풀이하여 시범을 보이고 난 후 아이들을 따라 하게 하였다. 그러자 녀석들은 차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큰 녀석이 먼저 손을 털고 냉큼 물러서 버렸다.

“시시껄렁해!”

조금은 열적은 표정인 채로 녀석은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재미도 없이 손만 더러워졌잖아!”

그러자 둘째도 형을 뒤따랐다.

“그래, 아주 시시껄렁해. 지저분하게 놀았다구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마…….”

나기배 씨는 왠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껏 집념을 가지고 땀 흘려 쌓아 올렸던 무언가를 녀석들이 일고의 미련도 없이 허물어 버리고 마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은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 잡자기 끊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그는 큰 녀석의 이마를 쥐어박았다.

“뭐야? 시시껄렁하다구?”

고함치듯 그는 말했다.

“네 녀석들이 명청하니깐 그렇지 이게 왜 시시껄렁해? 뭐, 지저분하다구? 야 임마, 이 흠이 어째서 지저분하단 말이나? 어째서 불결해? 병이 든 건 차라리 네놈들의 고 하얀 손이다 이눔들아…….”

울컥 넘어오는 열기를 토해 내다 말고 나기배 씨는 멍해졌다. 이 무슨 맹랑한 짓인가. 그는 풀썩 웃고 말았다. 느닷없이 머리통을 쥐어박혀 잔뜩 부어터진 낯짝을 하고 있던 큰 녀석이 호되게 쏘아붙였다.

“아빠 뻔히 신경질이야. 재미있음 아빠 혼자서나 해!”

그러자 머쓱해 있던 둘째도 금세 기를 꺾었다. 녀석은 호주머니 속에 쓸어 담았던 구슬들을 한 줍씩 꺼내 팽개쳤다.

“그래 아빠 혼자서나 해. 형, 우리 텔레비 보자.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버렸다. 모든 것—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흠과, 거기 점점이 흠뻑려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 말이다…….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더 이상 삼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어찌, 흠을 파 뒤집는 일만이겠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매달려 씨름해 왔던 온갖 일들은 물론, 앞으로 새로이 부딪치게 될 작업들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참 맹랑한 노릇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불혹의 생애가 너무나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꺾은 채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아무도 미련 두지 않는 색 구슬들이 파헤친 흠더미 위 여기저기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비스듬히 기운 햇빛을 받아 그것들은 잘디잔 별뿔기처럼 곱게 빛나고 있었다. ㉠ 다시 땅속 깊이 은닉해 둘 필요는 없으리라. 그것들은 이제 뜨락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며 잠깐씩 보는 이의 향수 같은 것을 희미하게 자극하다가 끝내는 발길에 채여 시궁창이나 쓰레기더미 같은 데로 영영 모습을 감추리라.

-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태도로 사건을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한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진술하여 사건의 진모를 밝히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1. '색 구슬'에 대해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래부터 가치가 없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② 앞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 ③ 이제야 그 가치를 드러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 ④ 과거에 지녔던 가치가 이제는 외면받기 때문에
- ⑤ 예전의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42. [A]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고 할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S#23. 가정집의 정원

깜짝 놀라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나기배 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주먹 가득 색 구슬들을 집어 들어 꼼꼼히 들여다본다. 색 구슬들이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인다. (C.U.)

나기배 씨 : (혼잣말로) 내가 방금 보물단지를 갓군.

나기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큰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O.L.)

S#24. 마을의 공터

소년(나기배 씨)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은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소년의 친구가 부러운 표정으로 소년을 쳐다본다.

소년의 친구 : (간절하게) 기배야, 네가 가진 색 구슬 하나만 내 구슬 다섯 개랑 바꾸자, 응?

소년(나기배 씨) : 싫어, 이건 나한테 보배란 말이야. 네가 가진 보통 구슬 열 개를 줘도 안 바꿀 거야.

S#25. 가정집의 정원

나기배 씨 : (색 구슬을 보며 미소 짓다 혼잣말로) 녀석들에게 색 구슬이 뭔지 알려 줘야겠어. 그런데 이 녀석들 뭐하고 있지? (방 쪽을 바라보며) 어휴, 또 텔레비전에 빠져 있겠군.

S#26. 어두컴컴한 방안

방 밖에서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두 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잠시 후, 큰 아들이 일어나 텔레비전의 볼륨을 줄이더니 방 밖으로 얼굴만 내민다.

- ① S#23에서 확대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핵심 소재인 색 구슬을 강조해야겠어.
- ② S#24의 회상 장면을 통해 나기배 씨에게 색 구슬이 주는 의미를 드러내야겠어.
- ③ S#24의 소년의 친구와 S#26의 두 아이가 동일한 표정을 짓게 하여 절박한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드러내야겠어.
- ④ S#25의 나기배 씨의 대사를 통해 S#26의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이유를 드러내야겠어.
- ⑤ S#25에서 나기배 씨가 짐작한 상황을 S#26에 구현하여 장면을 연결해야겠어.

43.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밝고 따뜻한 날」은 세대 단절로 인해 상처 받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텔레비전’과 ‘구슬 놀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기배 씨는 자신이 살아 온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과의 소통에 실패한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텔레비전에 대한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반응의 차이에서 세대 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에서 세대 단절의 극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 ④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 혼자만 남겨진 나기배 씨의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를 엿볼 수 있군.
- ⑤ 나기배 씨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서 세대 단절로 인해 기성세대가 받는 상처를 엿볼 수 있군.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10A)

[앞부분의 줄거리]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 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딸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간다. 매화는 조 병사에게 구원되고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양유의 계모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낸다.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관상쟁이가 이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士夫) 후계요, 매화는 유리결식(流離乞食)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 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하고 나아가거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병사께서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매화 너의 짝이 될지라. 저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두리요.”

한대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

이때에 병사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장단골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길가에 앉았거늘 병사 말을 머무르고 물어 가로되,
“이곳이 연화동이냐?”

“연화동으로소이다.”
병사 물어 가로되,
“연화동이라면 김 주부라 하는 양반 있느냐?”
그 사람이 웃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이 있더니 남의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이 말을 들으매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 할 줄을 모르다가 다시 생각하여 가로되,

“날이 저물은지라 유하고 갈 터이니 주점을 이르라.”
한대 그 사람이 한 집을 인도하거늘 병사 들어가니 또 한 사람이 물어 가로되,

“말 타고 온 손님은 어떠한 양반인고?”
주모가 가로되,
“저러한 양반이 김 주부 같은 놈을 찾아 왔다.”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은 이미 도망하였거니와 저희 딸 매화 비록 천인(賤人)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 아무 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이리라.”

하거늘 병사 주모더러 물어 가로되,

“이 곳에 김 주부라 하는 재인이 있느냐?”

주모가 가로되,
“수년 전에 어디론가 도망하였삽더니 듣사오니 제 딸 매화는 남복을 입고 황해도 연안 지경에 있단 말을 들었나이다.”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답하여 가로되,
“만일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사를 하였던들 사대부 집안에 대단 비웃음을 살 뻔하였도다. 매화는 천인 자식이라 내쫓으라.”

한대 부인이 가로되,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 아니 하면 무슨 허물 있으리까?”

병사 또 학당에 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하시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 병사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간다. 김 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와 방에 가두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한다.

“동자는 불쌍한 사람을 살려 주소서.”

한대 동자 가로되,
“원명* 그뿐이라 낸들 어찌하리요. 만일 여자 혼신(魂神)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문을 잠그고 나가거늘 양유 축하에 앉았으니 정신 산란한지라. 창천에 월색은 명랑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하고 바람만 수수하여도 귀신인가 의심할 제 이팔청춘 어린이 이 일진간장 다 녹인다. 이윽하여 밖으로 공성이 들리거늘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어머님, 어머님, 못 가겠소.”

부인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바빠 들어가자.”
매화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소.”

문고리 떨렁 방문이 와당탕, 양유 깜짝 놀래어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남자 녹의홍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득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나, 호랑이나,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과연 남자 일어나 사배(四拜)하거늘 양유 내념(內念)에 행여 살려 줄까 일어나 극진히 절하고 거동을 살펴보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이 열리며 한 ㉠ 봉서가 내려지거늘 그 글 보니 하였도되,

‘만산초목이 다 피었도되 양유-매화는 봄소식을 모르는도다.’
하였거늘 양유 그 글을 보고 여자를 살펴보니,

“연연한 거동은 매화와 방불하다마는 이러한 산중에 어찌 매화가 왔으리요”

남자도 추파*를 번듯 들어 수재*를 살펴보며 가로되,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

하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매우 기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가 분명하거늘 양유가 가로되,

“네가 죽은 혼이나. 명천이 감동하사 매화 얼굴 다시 보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요.”

하고 기절하거늘 매화는 흥중이 막히어 아무 말도 못 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 작자 미상, 「매화전」 -

- * 원명: 본디 타고난 목숨.
- * 추파: 미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
- * 수재: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인 소재를 통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씨 부인의 동생은 조 병사보다 앞서 장단골에 갔다.
- ② 매화 모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 ③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 ④ 주모는 조 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 ⑤ 조 병사의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다.

46. <보기>를 활용해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전소설에서 혼사 장애담은 남녀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되지만 다시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혼사 장애담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남녀의 만남	→	A 혼사의 진행	→	B 혼사의 장애	→	C 남녀의 이별	→	D 남녀의 재결합
-----------	---	----------------	---	----------------	---	----------------	---	-----------------

- ① 조 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 씨 부인과 상의했군.
- ② 최 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간계를 부리는 데서 B가 비롯되었군.
- ③ 조 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C를 명령했군.
- ④ 매화는 C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 ⑤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D를 확인했군.

47.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매개가 된다.
- ② 인물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인물들이 잘못된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 ④ 인물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 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된다.

[48 ~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10B)

[앞부분의 줄거리] 남윤은 전란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다. 왜왕이 남윤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공주와 결혼 시키려 하나 남윤은 본국에 아내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공주의 간언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주와 친밀한 사이가 된다. 그 후 어느 날 남윤은 꿈을 꾸게 된다.

푸른 옷을 입은 선녀가 남윤에게 말하기를,

“저 붉은 도포에 금관을 쓰신 분은 옥황상제요, 좌우에 서위하는 이는 여러 부처와 신선이요, 녹의홍상한 이는 모두 선녀입니다. 오늘이 마침 칠월 칠석이매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는 고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명하시어 인간에 적당한 선관과 선녀를 불러 배필을 정하려 하심이니 그대를 부르옵거든 대답하옵소서.”

하고, 즉시 올라가 남윤을 패초*하였다고 아뢰니, 옥황상제가 묻기를,

“추성(筍星)*은 배필을 거느리고 왔느냐?”

하였다.

한 선녀가 대답하기를,

“다 불러왔나이다.”

옥황상제가 전지하여 각각 차례로 부르라 하시니, 한 노승이 육환장(六環杖)을 짊고 장삼을 입고 염주를 목에 걸고 앞에 나와 명을 듣잡고 섬돌에 내려서며 푸른 옷을 입은 선녀에게 명하여 남윤을 부르라 하였다. 선녀가 명을 받들어 남윤을 인도하여 섬돌 아래에 세우고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기를,

“추성으로 말미암아 세 선녀가 투기하여 남방의 재변이 매우 심하기로 인간 세상에 적강시켰으니, 인간에 거처한 연한이 지나거든 모두 모여 즐기다가 나이 칠십이 차거든 올라오되, 월중선은 그 중에 죄가 가벼우니 십 년 후에 먼저 불러 올리리라. 너희는 자세히 명령을 들으라.”

하시니, 남윤의 뒤에서 각각 승명하였다. 남윤이 놀라 돌아보니 하나는 일본국 공주요, 하나는 함흥부 옥경선이요, 하나는 잘 아는 얼굴이로되 웃고름에 혈서를 찼으니 반드시 이씨 석랑이었다.

남윤이 창황 중에 노승에게 묻기를,

“네 사람 중에 월중선은 무슨 연고로 구태어 십 년 만에 올라오라 하시나이까?”

노승이 말하기를,

“석랑은 옥경선과 일심이 되어 월중선을 모해하는 까닭에 세 사람은 조선에 적강하며 고생하며 지내게 하고, 월중선은 그 중에 죄가 적으므로 일본국 공주가 되어 편안히 즐기게 함이라. 네 사람을 각각 적강시킬 때에 월중선은 일본으로 보내고 세 사람은 조선 안변 서화사에 부탁하여, 추성은 남두성의 독자가 되고, 석랑은 이경희의 여식이 되고, 옥경선은 그 중에 죄가 더 무거워서 함흥의 기녀가 되어 고생하게 하였나니, 나는 안변 서화사의 부처라. 그대들이 어찌 나를 모르느냐?”

하고, 이어서 소매에서 푸른 구슬 네 개를 내어 각각 하나씩 주며 말하기를,

“이로써 일후 표식을 삼아 천생배필인 줄 알라. 그리고 인간에 내려가 월중선을 만나 십 년 동안 함께 즐기다가 먼저 올려 보내고, 본국에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찾아 함께 즐기다가 나이 칠십이 차거든 올라오라.”

하고 봉황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나가게 하였다. 중문을 나오다가 실족하여 높은 섬돌에서 떨어져 놀라 깨달으니 일장춘몽이었다. 한 손에 구슬이 쥐여 있거늘 남윤이 탄식하기를,

“몽사가 기이하다.”

하고 태자에게 전하여 왜왕께 아뢰었다. 왜왕이 기특히 여겨 즉시 공주와 왕비에게 이르니 공주의 몽조 또한 이리하고 구슬이 있었다. 즉시 ㉠ 구슬 두 개를 서로 비교하니 터럭만 큼도 다름이 없으니, 왜왕이 더욱 기특히 여기시어 말하기를,

“이는 천정배필이니 누가 감히 말리리오?”

즉시 택일하여 화촉지례를 이루매, 교배석에 나가니 신랑의 아름다운 풍채와 신부의 선명한 태도는 하늘이 감동할 만하였다. 태자궁 서편에 공주궁을 짓고 많은 보배를 상으로 주며 궁녀 삼백을 주고 궁궐 이름을 청천궁(靑天宮)이라 하였다.

부부의 금슬이 비할 데 없으나 마침내 수태(受胎)함이 없으니 왕과 왕비 크게 근심하였다. 이러구러 십 년이 지나매 일일은 공주가 가장 비감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인연이 멀지 아니하였으니 연연한 정을 장차 어찌하리오?”

남윤이 놀라 묻기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오니까?”

공주가 대답하기를,

“군자는 십 년 전 꿈속에 요지연에 갔던 일을 잊고 계시나이까? 첩의 사주를 보니 금년 팔월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첩이 죽으면 군자를 본국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니, 이때를 타서 도망함이 마땅하나 만경창과에 어찌 도달하리오? 첩이 죽더라도 다른 공주가 있으니, 알지 못하겠습니까. 군자는 재취하고저 하나이까?”

남윤이 말하기를,

“공주와 더불어 하늘이 정한 인연이 있기로 마치못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가 나를 이렇듯이 돌보아 생각하시니 감격하거니와 본국에 있는 배필이야 어찌 일시나 잊으리오? 바라건대 공주는 이제 영결한다고 오열하시니 느껴운 마음이 측량없습니다. 공주가 별세하시면 만리타국에서 외로운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살리오? 차라리 나도 공주와 같이 죽사와 천행으로 주인 없는 외로운 혼이나마 본국에 돌아감과 같지 못하다.”

하니, 공주가 또한 비감하여 말하기를,

“첩이 이제 죽으면 군자는 넓고 넓은 푸른 바다에 돌아갈 길이 아득할 것이니, 평생의 계교를 발하여 군자가 무사히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종일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남윤전」 —

* 패초: 명을 내어 부름.

* 추성: 천상계에 있을 때 남윤의 호칭.

4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초월적 존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49. ㉠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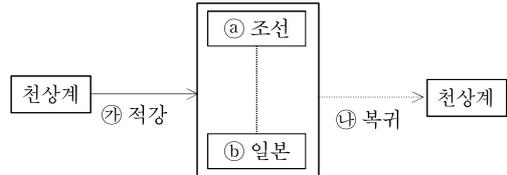
㉠.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가 된다.
 ㉡. 남윤과 공주의 인연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 남윤이 영웅적 인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 공주와 왜왕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남윤전」은 남녀 주인공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며, 이들이 꿈속에서 들은 예언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아래의 공간의 변화와 연결하여 읽어 봅시다.



- ① '남윤'과 '공주'는 꿈을 통해 자신들이 ㉡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군.
- ② '공주'는 자기가 죽은 후 '남윤'이 곧바로 ㉣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군.
- ③ '공주'가 가장 먼저 ㉣를 하게 되는 이유는 ㉢ 이전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군.
- ④ '남윤'은 공주가 ㉣를 하게 된 후에 ㉠로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만나겠군.
- ⑤ '남윤'은 ㉡에서 '공주'와 결혼했지만, ㉠에 있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군.

51.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상대방을 도우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A]와 [B]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과거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다.
- ⑤ [A]에는 이상향에 대한, [B]에는 세속적 공간에 대한 지향이 암시되어 있다.